

## 카지노 인근에 머무는 중노년 여성의 도박과 체류 경험에 관한 연구

홍 선 희<sup>†</sup>

이화여자대학교

도박하는 여성들이 비난과 낙인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지만 도박을 하는 여성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카지노 인근에 체류하고 있는 여성들의 도박 경험과 일상의 삶을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현장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수행했으며, 도박을 하면서 카지노 주변에 머무는 중노년 여성 20명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이들은 대개 가족 안에서 (비)순응적인 삶을 살다가 이혼이나 사별 등 생애 위기에서 도박을 접하게 되고 재미와 쾌락을 경험하면서 도박에 빠지게 되었으며, 돈을 벌기 위해 카지노 근처에서 고된 노동을 하지만 그곳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성들이 생애주기에서 겪는 삶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개입의 요구와 도박하는 여성들이 지역공동체에 복귀하여 정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주요어 : 도박, 여성도박자, 카지노, 현지조사

---

<sup>†</sup> 교신저자 : 홍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2107, E-mail: simplismus@nate.com

우리나라는 도박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형법에서 그에 따른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모든 도박이 불법 대상은 아니다. 일부는 사행산업이라는 명칭으로 합법화하여 국가차원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정 진단기준에 따라 이용수준이 과도한 경우를 병적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도박중독 역시 국가의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6: 34-36)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유병률이 8.0%로 여성의 2.3%보다 약 3.5배 높게 나타났다.<sup>1)</sup> 이에 반해 사행산업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유병률에서는 남성이 35.7%, 여성이 33.9%로 실제 도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유병률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6: 136).

더욱이 카지노 주변 도박관련 체류자 실태 조사에서는 남성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66.8%, 여성은 69.4%로 카지노 도박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박창우 등, 2016: 81). 카지노 인근에 머무는 체류자들의 경우 다른 도박시설 이용자보다 유병률이 2배가량 높다는 것은 도박중독자들이 카지노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이곳에 도박문제나 위험이 있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1) 2013년 조사한 수치에서 전체 유병률은 5.4%이고 남성 유병률은 8.9%, 여성 유병률은 2.0%로 남성이 여성보다 4.5배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36) 남녀 차이의 폭이 좁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카지노 도박으로 인해 원래 살고 있던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카지노 주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정확한 수치가 집계된 바는 없지만 관계자들은 주변 체류자들의 수를 대략 적게는 1,000명, 많게는 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박창우, 최정현, 2013: 34; 이혁구 등, 2014: 287; 박창우 등, 2016: 3).

이중 여성의 비율을 추측하기는 어렵다. 단지 강원랜드 카지노 출구조사에서 출입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볼 때 남성이 67.7%, 여성이 32.3%로 이용자 중 대략 3분의 1정도가 여성임을 추정해볼 수 있을 뿐이다(이태원, 2004: 196).<sup>2)</sup>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나타난 강원랜드 카지노 딜러의 인터뷰에서 카지노 출입 남녀의 비율은 남성이 조금 많기는 하나 근소한 차이로 비슷하다고 할 때(오마이 뉴스, 2016), 여성과 남성 이용자의 비율이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카지노 객장에 들어가 보면 여성들이 남성 못지않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카지노에 출입하는 여성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도박으로 인해 카지노 인근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들의 도박문제는 수치상으로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도박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도움요청을 하거나 상담 또는 치료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박문제관리센터의 헬프라인 전화상담은 공

2) 외국 연구에서도 문제성 도박자의 적어도 3분의 1이 여성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Avery & Davis, 2008: 171), 국내의 한 연구에서도 여성이 병적 도박자의 32.58%를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여성 도박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송주연 등, 2005: 678).

적인 기관에 도박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최초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보면 전화상담 전체 요청자 중에서 도박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성별비율은 여성이 2015년 3.7%, 2016년 3.4%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대상자 가족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2015년 77.0%, 2016년 77.1%를 차지해 도박자 가족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 가족보다 도움요청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7). 이는 여성이 도박자로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요청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도박자의 성별현황을 볼 때 여성은 2015년 3.0%, 2016년 3.3%로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sup>3)</sup> 반면 상담서비스에 있어서 도박대상자 가족의 성별비율은 여성이 2015년 83.4%, 2016년 82.3%로 나타났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7). 위의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여성 중에서 도박 대상자의 비율은 2015년 4.9%, 2016년 6.0%에 지나지 않는다. 즉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여성 100명 중에서 5-6명만이 도박을 하는 당사자이고, 나머지는 도박자의 가족인 것이다.

3) 『2016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서는 지역센터 상담서비스를 받은 도박자 중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이 2014년 4.5%, 2015년 3.0%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7: 32), 『2015 도박문제관리백서』의 수치인 2014년 4.7%, 2015년 3.2%보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6: 145) 다소 낮게 나타났다. 2016년 통계 수치는 지역센터 등록대상자만을 집계한 것으로, 이와 같이 수치가 더 낮은 것을 보면 여성도박자는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지역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더 많다고 해석된다.

여성의 도박행동은 사회적으로 더욱 지탄받고 스스로도 그 점을 인식하면서 처우개선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에서 남성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도박중독에 대해서 대부분 남성도박자와 여성 도박자가족 위주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실천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박자가 어떤 이유나 사정으로 공적 지원시설이나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으려 하지 않는지, 여성도박자의 입장을 드러내고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박으로 인해 어려움과 문제에 처한 여성들이 상담이나 지원 등의 공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일탈적 행동의 주체가 여성인 경우 사회적으로 더 비난받고 더 낙인찍히는 경향이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 음주, 흡연, 도박 행위 등을 적게 하고 이것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는 남성이 이같은 일탈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억압적인 환경에 있기에 그 영향으로 범죄나 일탈행동이 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아니면 여성의 행동이 국가나 사회에 의해 통제되기 보다는 가정 내에서 관리되고 감시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무시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성의 일탈행동은 비가시화되면서 소수의 여성에 의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더욱 비난받고 처벌되며 공적인 처우개선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 도박이 범죄에서 중독이라는 질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지만 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지원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보다 배제되고 있어 실질적인 치유서비스

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여성도 박자에게는 이중의 배제가 작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카지노 주변에 머물고 있는 도박하는 여성들은 ‘여성앵벌이’, ‘쪽박걸’이라는 속어로 지칭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성매매를 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민주신문, 2006; 김세진, 2008: 166). 그러나 체류자들이 카지노 인근이라는 공간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를 알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카지노를 다니면서 그 인근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카지노 앵벌이’, ‘카지노 노숙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실제 이들의 경험세계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명명이라고 말한다(이혁구 등, 2014: 288). 이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들여다볼 때, 이들은 앵벌이도 노숙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도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일당제로 일하는 모습도 있지만(송진아, 김용근, 2014: 132), 여성도박자가 카지노 주변에서 어떠한 일상을 경험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거의 없다.<sup>4)</sup> 여성은 가정이라는 장소에 위치 지워져야 하기에 가정 밖, 특히 카지노라는 욕망의 공간에 여성의 자리는 없으며 있어서

도 안 되는 것이다. 여성에게 카지노와 도박은 의무와 역할만이 강요되던 가족과 가정으로부터 탈주가 가능한 하나의 지점처럼 보이지만, 이는 또다른 덧으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배제와 소외라는 결과를 불러온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카지노 주변에 체류하고 있는 여성들이 도박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원거주지를 떠나 이곳에 머물게 되었으며, 자본과 개인의 욕망이 교차하는 공간인 카지노에서의 도박 경험을 통해 그 속에 내재된 여성 욕망의 궤적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도박하는 여성들이 카지노 인근에 거주하면서 겪는 일상적인 삶과 노동의 경험은 어떠한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 그 의미는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어 가는지, 그리고 일상과 도박을 어떻게 관계 맺으며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모색해나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선행연구 검토: 젠더차이의 과잉과 축소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이 도박에서 완전하게 제외된 것은 아니지만 도박은 특정시기, 특정장소에 있는 특정한 여성에 한정되었다. 거다 리스(Reith, 2006)가 쓴 도박의 계보학이라고 할 수 있는 책에서도 여성들 사이에서 도박이 인기가 높았다고, 단 한군데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여성들은 “최신 도박게임에서 취향의 결정자이자 패션의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Reith, 2006: 134). 이는 프랑스 앙시앵레짐 때 궁중도박을 말하는 것으로 사교계에 있는 극히 일부 여성들에게 한정된 경우이며, 더욱이 여성에게 도박은 돈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취향과 패

4) 언론보도는 카지노 도박을 하는 여성들을 흥미 위주로 선정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Break News, 2007; 일요시사, 2012),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도박하는 여성이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그콘서트』 복숭아학당에서 파친코 하는 여성이 코믹하게 등장하는가 하면, 시트콤 『보그맘』에서는 노점상을 하다가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지면서 강남에 입성한 윌리엄 맘의 말끝마다 튀어나오는 도박용어는 캐릭터를 풍자하는 웃음코드로 작용하여 도박하는 여성인물을 희화화시켜 재현하고 있다.

션이 관련된 사고의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 역시 도박행위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박하는 여성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과거에는 남성의 문제라고 생각되어 왔던 병적 도박의 비율도 여성에게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박을 하는 여성에 관한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남성도박자와 비교하여 여성에게 두드러진 특성으로 정서적 문제, 병적 도박으로의 진행과 관련된 축약효과(telescoping effect), 도움요청과 지원의 미비 등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다.

첫째, 도박에 있어서 젠더차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여성도박자가 남성도박자보다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남성에게 비해 더 높은 점수의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를 보고했으며(Getty et al., 2000; Ladd & Petry, 2002; Afifi et al., 2010; Grant et al., 2012; Ledgerwood et al., 2012; Holdsworth et al., 2013), 외로움이나 정서적 상처로부터의 도피가 여성이 도박을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 남성은 정서적 영향이 부차적이다(Grant & Kim, 2002; Li, 2007).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은 도박을 하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감정적이라기보다 감정표출이 남성에게 비해 더 용인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도박으로 인한 감정적 어려움을 남성보다는 더 용이하게 호소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로 여성도박자는 남성도박자보다 더욱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편견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여성도박자 특징의 하나인 이른바 축

약효과는 도박을 시작한 연령과 병적 도박을 자각한 연령까지의 기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짧은 것을 말한다.<sup>5)</sup> 여성도박자는 남성과 비교하여 늦은 나이인 삶의 후반부에 도박을 시작하나 도박을 시작한 후에는 빠른 속도로 병적 도박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Grant & Kim, 2002; Grant et al., 2012). 여성도박자에게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축약효과는 도박을 시작한 후 되도록 조속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Grant & Potenza, 2012). 질병의 발병나이는 정신의학에서 중요한 임상적 요인이 되며 병적 도박에 있어서도 발병나이는 여러 가지 주요한 임상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Grant et al., 2009). 늦은 나이에 병적 도박이 발병하는 여성의 경우 중년과 노년집단에서 도박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Ladd & Petry, 2002; Afifi et al., 2010). 그러나 젠더차이에 있어 축약효과에 대한 검증은 목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도박의 시작연령이 최초 증상으로 진행되는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이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병적 도박에서 남성도박자와 비교하여 여성도박자가 뚜렷한 축약효과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Slutske et al., 2015). 축약효과가 젠더에 따른 차이라기보다 늦은 도박 시작연령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이다. 설령 젠더차이라고 하더라도 도박이 삶의 문제로 자각되는 데에는 재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재정적

5) 축약효과는 여성이 도박을 시작한 시점에서 장애로 발병하는 기간이 남성보다 짧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용어이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남성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여성의 특성들이 의학적 기준이 되었다면 남성도박자의 특징으로 '연장효과'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원이 남성보다 부족한 여성은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더 빨리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sup>6)</sup> 실제 연구에서도 문제성 도박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저소득이며 재정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Afifi et al., 2010; Ledgerwood et al., 2012).

마지막으로, 여성도박자는 전문기관이나 치료시설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은 사회적 문제나 건강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가 다르며 더욱이 도박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낙인은 도움을 요청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젠더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 남녀 모두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지만 여성은 특히 낙인과 관련하여 수치심이 도움요청의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Baxter et al., 2016). 더욱이 문제성 도박자의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여성이지만 치료와 회복이 남성도박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남성위주의 치료지원체계가 여성도박자로 하여금 치료시설을 찾는 것을 더 어렵게 한다(Avery & Davis, 2008). 치료와 지원서비스에

있어서 젠더가 고려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Ladd & Petry, 2002; Ledgerwood et al., 2012). 연구자들은 젠더가 도박행위에 대해 강력한 예측요인이 되고 있으며 치료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지만 성별에 따른 도박행동과 치료적 반응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면서 도박에 있어서 젠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Delfabbro, 2000; Grant & Potenza, 2012).

이 밖에도 젠더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편견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도박 연구들이 있기도 하다. Suctens와 Tyran(2012)의 연구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도박자의 오류<sup>7)</sup>가 남성에게서는 발견되었지만 여성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남성이 비합리적이고 인지적 왜곡이 더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도박이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것이라 여기지만, 여성도박자 자신은 친밀감과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적응이 나타난 반면 배우자와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Dowling et al., 2009). 중독치료센터를 방문한 병적 여성도박자들이 어떻게 여성으로서의 성역할과 사회문화적 기대를 관리해 나가는지 탐색한 연구에서 여성들은 성역할과 도박행동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 이성

7)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동전을 던져 앞면이 연속해서 여러 번 나왔다면 앞서 일어난 사건이 뒤에 일어날 사건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독립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틀림없이 뒷면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걸게 된다. 이러한 행동을 도박자의 오류라고 한다. 위 연구에서 남성은 지난주 복권 결과에 의미있게 반응한 반면 여성은 그렇지 않았다.

6) 『사행산업론』이라는 책에서 저자의 의도는 아니지만, 문제성 도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 요약하면 레이건 행정부 당시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윌리엄 베네트는 공직에서 물러난 후 10여년간 800만 달러를 카지노에서 잃었다. 그의 도박 금액은 천문학적 액수이기는 하나, 그에게는 감당할 만한 액수였고, 가족의 안전과 일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이는 주식투자·부동산구입·낭비와 같은 행위로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에게 그만한 액수는 여홍일 수 있다고 했다(황현탁, 2012: 25-26).

적 선택을 하는 엄마였으며 도박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노력했다. 이들은 도박습관을 절도나 성매매보다는 자신들의 행동을 정상화할 수 있는 더 도덕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Gavriel-Fried & Aizenstadt, 2012).

국내의 도박관련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도박중독에 대한 이해나 치료적 개입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한영옥 등,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도박이나 젠더차이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 역시 외국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연구에서도 남성 병적 도박자에 비해 여성은 감정적인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우울, 무력감,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피수단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수준과 수입이 낮았고 늦은 나이에 도박을 시작하여 병적 상태로의 진행이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인혜, 2004; 송주연 등, 2005; 강성군, 2010). 양적 연구 이외에 카지노 인근에 체류하고 있는 새로운 인구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 이용자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에 여성도 포함되고 있지만 젠더에 기반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박창우, 최정현, 2013; 송진아, 김용근, 2014; 이혁구 등, 2014; 이근무 등, 2015).<sup>8)</sup>

8) 카지노 인근 체류자에 대한 질적 연구에 여성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젠더차이에 대한 인식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여성 경험은 남성 경험의 대표성 안에 묻혀있는 형국이다. 한 연구(박창우, 최정현, 2013)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직접인용 건수 총

카지노를 이용하는 여성 경험에 대한 Kim et al.(2016)의 연구는 상담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아 카지노 지역에 있는 여성도박자를 심층 면접한 결과 외로움과 고립이 도박행위와 관련하여 여성들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외로움을 회피하고자 도박을 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박을 끊고자 하지만, 외롭지 않기 위해 카지노 주변에 머문다는 것이다. 또한 홍혜미와 김용근(2014)는 카지노 인근에 체류하면서 도박중독 치유와 직업재활 상담을 신청한 여성노인 도박자의 생애사 연구에서 아버지와 남편으로 대표되는 봉건적 환경에 대한 일탈과 저항의 일환으로 도박을 보면서 연구참여자의 생애를 “타인의 손에 이끌려 나쁜 길로 인도되는 인생”으로 분석하였다. 여성의 도박행동을 가부장제의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의미화했지만 여성도박자를 수동적인 피해자로 구성하고 있다. 위에서 논의된 두편의 논문은 상담센터라는 치료세팅에서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성도박자들이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실제 대부분의 여성들이 도박문제 서비스지원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담센터를 방문한 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도박하는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51회 중 여성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는 7회에 불과했다. 분석결과에서 나온 28개의 의미단위 속에서 단지 7개의 의미단위에서만 여성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또한 남성 목소리와 함께 취급되고 있었다. 남성과 다른 여성의 경험을 말하는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여성의 경험은 단지 남성 경험의 부가적인 요소로 작용할 뿐이었다. 여성과 남성의 경험은 분명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다른 여성의 경험이나 인식은 아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있을 것이다.

보편성은 대개 남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여성은 보편성을 벗어나는 개별적인 것으로 본다. 이는 현실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편적 결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여성에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 어떤 분야의 연구도 보편성을 획득하면서 아무런 이의 없이 남성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개별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보편성에 대한 예외로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남성도박자에게서 얻은 결과를 여성도박자에게 과일반화하거나 남성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도박자의 특수성을 문제화하는 방식은 지적되어야 할 사안이며, 그러하기에 여성의 관점과 경험에 기반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여성 도박중독에 대한 연구부족으로 남성의 도박중독 경험에 근거한 치료방법이나 효과 등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그대로 여성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도박중독에 대한 연구가 도박자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상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연구결과가 활용될 경우, 이는 남성도박자 중심으로 치료와 회복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여성도박자는 배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남성중심적이고 남성에 맞게 설계되고 이에 따라 여성은 서비스 지원에서 체계적이고 은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남성도박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는 그것을 기준으로 도박이나 도박중독이 연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여성도박자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다. 도박중독의 치유는 삶과 직결되어 있는 복합적인 사안

이므로 여성도박자의 경험과 삶에 따른 특수한 양상과 특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박자의 카지노 인근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연구와 접근이 요구된다.

## 방 법

### 현지조사 및 참여관찰

본 논문의 주된 연구방법은 현지조사에 바탕을 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이다. 카지노 인근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의 삶은 그 지역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더욱이 카지노 인근에 머물면서 도박하는 여성들은 잘 드러나지 않으며 걸로 가지화되더라도 편견과 왜곡 속에서 비취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인근에 체류하는 여성을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자신도 이들 여성과 일상을 공유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만 연구자의 서술과 분석이 좀더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의 경험도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사는 연구자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했다. 앨리슨 재거(Jaggar, 1992: 71)는 “경험적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여성의 능력이나 욕구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변화의 정도와 방향에 관하여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실제적인 여성을 실제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조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따라서 도박과 관련하여 원거주지를 떠나 카지노 주변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의 도박 경험과 체류의 삶은 어떠한지 일상의 경험을 드러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현장으로 가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으로 인해 주변에는 도박으로 이곳에 거주하게 된 새로운 인구집단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지역공간은 나름의 특수성을 가지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와 그 인근의 장소는 중요성을 가진다. 카지노는 고한과 사북이라는 두 마을의 중간쯤에 위치하며 현지조사도 두 마을에서 진행되었다. 고한에서는 2017년 5월 중순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민박집을 구해 체류했고 사북은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연구조사를 진행하였다.

카지노 현장을 중심으로 객장 안팎, 입장권 발매소, 매점, 셔틀버스 정류장 등 사회적 상황을 정하여 참여관찰을 하였다. 사회적 상황은 장소·행위자·활동의 세 가지 요소로 규정되며, 특정 지점에서 사람들에 의해 수행된 행동의 연속체를 말한다(Spradley, 2006: 112). 이에 따라 현장에서 축약된 노트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수행하는 행동들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짧게 기록했으며, 거주지에 돌아와서 이를 바탕으로 확장된 현지노트를 작성하였다(Spradley, 2003, 2006). 연구자는 도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예비지식을 갖고 갔음에도 카지노 객장 안의 모습과 도박행위의 참여는 문화충격을 느끼게 했다. 아마도 카지노를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충격을 경험할 것이며, 여기서 느끼는 충격은 사람에 따라 불안과 갈등일 수도 있지만, 황홀과 경

이 내지는 경악일 수도 있을 것이다.

카지노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고한과 사북이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면서 일상의 삶이 전개되는 시장, 길거리, 버스정류장, 슈퍼마켓, 식당 등 실제 생활현장에서 만나는 개인적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특히 카지노 지역에서 도박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과 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 있기에 이를 뒤로 한 채 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직시하며 이들이 말하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공식적인 인터뷰 외의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이들의 삶을 말해주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윤택림, 2004: 67), 이와 같은 현장에서의 대화와 경험은 심층면접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 심층면접

본 연구는 카지노 인근에 머물면서 도박을 하는 20명의 중노년 여성을 심층면접 하였다. 노년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여성 10명, 50대 및 65세 미만의 중년여성 10명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고한과 사북 등 카지노 인근지역에 체류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연구참여자는 이곳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택시운행을 하면서 한 달에 반 이상 카지노를 오가고 있다. 혼인상태는 12명의 여성이 이혼을 했으며 사별 3명, 별거 2명, 비혼 1명으로 대부분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 체류기간은 짧게는 1년이 안된 경우도 있지만 5년 이상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도 12명이다. 이들의 직업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

아 12명의 여성이 주방이나 서빙일을 하고 있다. 카지노 초창기부터 이용한 여성을 비롯하여 15명의 여성이 10년 이상 카지노를 다녔으며, 현재 도박을 끊고 카지노를 전혀 다니지 않는 여성은 연구참여자11, 16, 18이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심층면접은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나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한 시기는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이었다. 연구자가 현지에 체류했던 초기 한 달 동안은 카지노 이용 여성을 만나 인터뷰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7월말 이후에는 휴가철 관광성수기로 인해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이들 여성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카지노 다니는 여성을 만나도 인터뷰 요청을 하는 것이 힘들었고, 하더라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로부터 접근 및 수용을 얻어내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Padgett, 2001: 63). 하지만 연구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계속해서 같이 거주하거나 같이 일을 하는 여성을 소개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 이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관계망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 반면 연구자와 같은 민박집에 거주했던 남성도박자에 의하면 카지노에 다니는 사람들과 지역주민은 완전 분리되어 “따로따로”라고 말했는데, 실제 지역주민으로부터 여성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은 경우는 없었다.

공식적으로 심층면접은 주로 연구참여자들이 일을 마치거나 쉬는 날에 연구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이루어지거나 연구참여자가 일하는 식당에서 한가한 시간에 또는 연구참여자

가 거주하는 방에서 대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연구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시장이나 버스정류장 또는 일하는 식당에서 다시 만나 면접 때 못다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면접방법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비형식 내지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질문을 요구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고 연구자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대답만 하기를 원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심지어 면접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설문조사는 언제 하냐고 묻는 연구참여자도 있어 좀 더 구조화된 면접을 염두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도박중독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질문이나 설문조사에 익숙해져 있는 듯하여, 오히려 구조화된 방식의 면접은 지양하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연구자의 중립성을 중요하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김교헌, 2009), 연구자는 선이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현지조사에서 연구자는 중립적인 관찰자일 수 없으며 연구가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연구자의 관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윤택림, 2004; 김인숙, 2016). 카지노 업체, 지역주민, 카지노 이용자 등 각자 다른 위치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각축하고 있는 카지노라는 공간에서 중립적인 연구자는 어찌면 허구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의 관점은 연구의 방향과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카지노 인근에 살고 있는 도박하는 여성들의 관점에서 이들의 비가시화된 일상적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언론보도 등의 담론에 나타나고 있는 이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을 드러내고자 하며, 연구참여자의 주체성과 행위성에 주목하고자 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연령	혼인상태 (자녀)	과거직업	현재직업	이용 기간	체류기간	체류 지역	비고
1	63	이혼 (1남)	주부/ 식당 운영	편의점 · 식당 동업	10년 이상	8년	고한	연구자와 근거리 거주
2	62	이혼 (1녀)	주부/ 옷가게	택시운행업	17년	체류X	-	연구참여자1의 단골고객
3	69	이혼 (2남)	주부/ 집장사, 여관 운영	식당 주방	12년	5년	고한	연구참여자1과 공동거주
4	71	기혼 (1남2녀)	주부/ 식당 운영	식당 주방	10년	10개월	고한	연구참여자3이 소개
5	74	사별 (1녀)	옷장사	-	12년	단기체류	고한	연구참여자4와 공동거주
6	72	기혼 (1남)	식당, 매점 운영	식당 운영	10년 이상	10년	고한	연구참여자4가 소개
7	71	이혼 (자녀 유)	식당일	식당 주방 · 서빙	11년	11년	고한	연구참여자6의 옆 식당 근무
8	55	이혼 (1남)	식당일, 단란주점	염색 · 노래방 · 대리운전	1년	4개월반	사북	연구참여자20이 소개
9	55	이혼 (2남)	식당 운영, 사채업	식당 알바	5-6년	단기체류	고한	연구참여자20이 소개
10	68	이혼 (3남)	다방 운영	식당 알바	15년	12-13년	사북	연구참여자17과 같은 식당 근무
11	65	이혼 (1남1녀)	식당 운영	-	17년	15년	증산	영구정지, 직업학원수강
12	69	사별 (1남)	갈비집 · 정육점 운영	식당 주방	10년	6-7년	고한	카지노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만남
13	64	이혼 (3녀)	주부/ 식당일	식당 서빙	10년	2년	고한	연구참여자7의 앞 식당 근무
14	52	별거 (1녀)	슈퍼 운영	식당 야간서빙	7-8년	3년	고한	연구참여자13과 같은 식당 근무
15	55	별거 (1남1녀)	시행중개사	약초 · 나물 중개	5년	4년	고한	연구참여자12의 지인
16	61	이혼 (1남)	주부/ 식당 운영	읍사무소 회맹근로	7년	7년	고한	영구정지
17	66	사별 (3남)	슈퍼 운영, 호텔요리사	식당 야간주방	15년	10년 이상	고한	연구참여자7과 공동거주
18	60	비혼 (자녀 무)	모텔 운영	식당 알바, 잡일	11년	10년	고한	연구참여자1이 소개
19	69	이혼 (1남1녀)	건강원, 견어물, 쌀가게 운영	-	17년	13년	고한	연구참여자18과 공동거주
20	59	이혼 (1녀)	주부	다방 · 노래방	10년	5년	고한	연구참여자6의 단골고객

더욱이 도박하는 여성이라는 사회적 낙인은 이들의 말에서 진실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도박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로 거짓말을 들며 이들이 하는 말을 끝이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연구에서 구술자료는 과거 사건에 대한 사실적 진실보다는 서사적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윤택림, 함인희, 2006: 57), 사건이나 상황의 사실여부를 떠나 한 개인에게는 진실인 것이다. 카지노가 있는 지역에서 도박을 하는 여성은 이같은 특정한 위치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들의 기억과 언어는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적 틀로부터 기인되고 구성된 것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카지노 이용 여성들의 언어를 통해 이들이 현재 일상의 삶을 의미화하고 구성하는 방식과 그것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면서 이들의 삶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 결 과

### 카지노에서의 도박 경험

#### 가족의 해체와 (비)순응적 삶

카지노 도박으로 인해 그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각자 삶의 경험이 상이하듯 도박을 하게 된 경위나 과정 역시 서로 다르다. 이들 여성은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오던 중 어떤 계기를 통해 혹은 우연히 카지노를 접하게 되고, 또 각자의 이유로 카지노 게임에 빠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여성이 있어야 할 장소는 전통적으로 가족과 가정이기에 가정을 떠나 카지노 근처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가족

을 돌봐야 할 위치에서 벗어난 일탈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여성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여성들의 도박문제 때문에 가정이 해체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박하는 여성들은 이미 그 이전에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었다. 더욱이 순응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여성에게 남편의 폭력과 외도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이 끝나거나 뜻하지 않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은 이들의 삶에 찾아온 위기였고, 이 위기에서 접하게 된 카지노 게임은 이들 여성에게 버거운 삶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또다른 세상과의 만남이 되었다.

연구참여자2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실명 위기까지 갔고 이에 오빠들이 나서서 이혼을 시켰다. 그후 의류매장을 경영하며 딸을 키우면서 살다가 딸이 성장해 집을 떠나자 외로움과 허탈감으로 고스톱을 치게 된 것이 도박의 시작이었다. 연구참여자3도 겉으로는 남편이 부러워할 정도의 가정을 이루며 살았지만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와 끝내는 가정을 버리고 떠난 남편으로 마음고생을 하며, 이혼 후 평탄치 않은 삶을 겪으면서 도박판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울지도 않고 학교 다닐 때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 집에 저렇게 이쁜 그릇이 있으면 벌써 훔쳐갔다고. 내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쁨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시집가면 잘 못살더라. (연구참여자1)

내가 위자료도 안 받고 이혼을 했고 내가 돈을 받고 이혼을 하려면 이혼을 못하는 거야. 사람이 정말 싫으면 돈도 필요 없어. [...] 딱 얻어 터져가지고 여기 실명

했었어. 119 불러 서울 OO병원 가서 수술 해서 나왔잖아. 지금은 잘 보여. (연구참여자2)

참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았거든. 우리 애기 아빠가 3대 독자에 외아들로 아주 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도 착하고 그런데 워낙 여자들이 따르고 골프 치고 뭐 하다보면 세 번을 바람을 피고 세 여자를 얻었는데 네 번째는 결국은 나가더라고. 재산 뭐 이것저것 다 주고 그런 맘고생. [...] 어려워지는 과정에 도박판을 알게 된 거야. (연구참여자3)

남편을 중심으로 한 가족 안에 존재하던 여성은 이혼이나 사별 등 남편의 상실과 부재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도박은 그 순간의 고통을 모면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긍정적 경험을 제공한다. 연구참여자12는 남편의 죽음 이후 우울증에 걸려 그 해결책으로 도박을 하면서 우울증이 해소됐다고 한다. 연구참여자17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사별을 겪고 자신도 건강을 잃고서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고 그 와중에 카지노를 알게 되어 도박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반면 행복한 가족 안에서 느끼는 남모를 외로움으로 인해 연구참여자13의 말대로 “이상하게” 카지노에 빠진 사례도 있다.

나는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우울증이 와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는 인제 주위 사람들이 돈은 있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니까는 나를 화투방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 우울증은 거기서

우울증은 어느 정도 고친 거지,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우울증이 오면 첫째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않거든요. 어울려서 이렇게 하고 같이 놀고 하다보니까 그런게 많이 거기서 해소가 됐었지. (연구참여자12)

그때는 진짜 다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친구가 한번 여기 구경 한번 가자고 해서 온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뭐 집에서 살림하다가 이렇게 저기 하니까. 저는 화투도 칠 줄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딸들이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인제 좀 저기 하다보니까 애들이 딸들이 그러더라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런 테를 갔을까 그러고. (연구참여자13)

카지노 인근으로 오게 된 이유가 도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이곳을 찾았지만, 지금은 카지노 도박을 하는 사례도 있다. 현실적으로 소위 생계부양자인 남편의 부재는 여성으로 하여금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케 한다. 연구참여자8과 9는 이혼한 후 살기 위해 “돈이 돈다”는 카지노에 돈을 벌기 위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박을 접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8는 카지노 다니는 언니들의 운전기사로, 연구참여자9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위해 카지노를 찾아오게 된다. 이들이 말한 것처럼 만일 카지노가 없었다면 결코 자신들의 인생에서 도박을 접할 여지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혼자 20년을, 이혼하고 아들하고 있었는

데 아들도 커서 나가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 나는 일단 차비를 20만원을 받고 오니까 기름 넣고 15만원 벌고, 근데 처음에는 기사로 왔기 때문에 전혀 게임을 안 했죠. 오다보니까 사람이 보면 한다고 술친구 만나면 술 배우듯이 조금씩 하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신기하잖아요. (연구참여자8)

애들 키우다보니까 진짜 사기만 안치고 몸만 안 팔았지,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야 조금씩이라도. 왜, 식당도 해봤다가 식당 남의 집일도 해봤다가 백화점도 다녀봤다가 돈놀이도 해봤다가. 그런데 그것도 많이 떼이고 여자가 하니까 많이 떼이고. [...] 근데 돈 준 사람들이 여기를 오더라고, 여기를. 그러니까 따서 준다고, 돈 달라고 하면 따서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를 왔어요. 와서 처음에는 게임을 한 게 아니에요. (연구참여자9)

한편 연구참여자16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했거든요. 애기 아빠가 노름을 너무나 좋아해서 거기에 학을 띠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라고 말하며 자신이 도박에 빠졌던 이유를 알 수 없어 했다. 연구참여자10도 “원래 노름을 우리 아저씨가 OO서 살 때 좀 노름을 하더라고. 나가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라며 카지노 이전에 남편 때문에 아도사키 노름을 했다고 말한다. 이들은 모순되게도 남편의 도박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가정까지 파탄나 이혼까지 했으면서도 어느새 자신도 도박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삶에서 가족이 커다란 영향

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의 해체나 가족 안에서의 위기 경험은 여성이 도박을 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일탈로 볼 수 있는 도박을 하기까지 이들은 나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견디며 순응적 삶을 살려고 노력도 하고, 이혼 이후 자녀를 혼자서 키우기 위해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가족해체의 위기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접하게 된 도박은 “신기하게도” 또는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 끝내 여성들을 카지노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끔 했다.

#### 재미있고 빠지는 경험: 천국, 스틸, ‘끼’

카지노를 구경은 첫날 잭팟을 터트리려 많은 돈을 탄 여성들은 10년이 넘게 지나도 그 경험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만큼 잭팟 경험은 이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후의 삶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참조점이 되고 있을 정도다. 즉 그와 같은 대박을 터트린 경험을 또다시 반복하고자 계속해서 카지노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냥 구경 왔다가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랐는데 몇 백만원 혹은 몇 천만원까지 한꺼번에 탄 “빅승리”의 경험은 도박중독의 과정에 있어 하나의 큰 요인이 된다(Ciarrocchi, 2007: 94-95).

불법도박으로 붙잡혀 들어간 경찰서에서 국가가 허가한 도박장이 있다고 가르쳐주어 강원랜드 카지노에 오게 된 연구참여자2는 카지노 입성 첫날 잭팟을 터트리게 되고, 그 때문에 자신이 카지노에 코가 꿰었다고 말한다. 대박의 경험으로 인해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이 탄 돈의 몇 십배, 몇 백배 이상을 카

지노에 쏟아놓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14도 공기 좋고 물 좋은 강원도로 놀러 왔다가 마지막날 카지노 한번 가보자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도박을 전혀 모르는 채 그야말로 구경 왔다가 잭팟이 터졌다. 그후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 환청이 들리고 TV 보는데도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잠자는데 꿈에서도, 오로지 여기 오고 싶은 생각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저기 번쩍번쩍 하고 소리가 나고 이래. 내 기계가 번쩍번쩍, 저기서 번쩍번쩍 하고. 저게 뭔데요 하나까 아저씨가 잭팟이 터졌데. 그래 저게 얼마데요 하나까 저기 있는 돈이 다래, 6천9백8십만원. 잭팟이 터진거야. [...] 내가 생긴지 12일 만에 갔으니까 축하한다고 한 백명은 모였어. (연구참여자2)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좀 한번 해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돈 넣고 누르면 된대요. 그래 갖고 했는데 좀 하다보니까 어떻게 운 좋게 500짜리 잭까지 터졌어요, 첫날인데. 그 길로 그리고 그냥 재미보고 집에 갔죠. 근데 그게 자꾸 머릿속에 남아있어 가지고 또 오고싶고 또 오고싶고 그러다보니까 빠져 갔고. (연구참여자14)

크게 잭팟을 경험하든 그렇지 않든 카지노를 처음 접한 여성들은 한결같이 “별천지”, “천국”, “신기하다”는 말로 카지노와의 첫 만남을 표현하고 있다. 카지노를 알기 전 이미 도박을 해왔던 여성들에게도 강원랜드 카지노는 또 다른 의미에서 천국과 같은 곳이었다.

연구참여자6은 불법도박으로 경찰에 붙잡혀 전과까지 있기에 붙들려갈 염려가 없는 강원랜드 카지노는 지금껏 몰랐던 천국이었다. 연구참여자19도 경찰을 피해가며 도박을 해왔기에 경찰이 있어도 자유롭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카지노는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신세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불법도박을 했던 여성들은 허가 내놓고 하는 카지노에서 사도박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잃게 된다.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람 많잖아요, 딱 들어갔을 때 어머, 세상에 이런 데도 있나. 여기 번쩍 저기 번쩍, 기계도 여러 가지 다 있지. 진짜 별천지더라고요. (연구참여자14)

여기를 오니까 누구 붙잡혀 가기를 하나 뭐 하나, 경찰이. 난 지금도 경찰을 보면 막 가슴이 덜컹해요. 아, 여기가 천국인데 이런 천국을 모르고 왔다 싫어 갖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돈을 많이 잃었어요. (연구참여자6)

카지노 도박 경험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단연코 “재미”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카지노에 대해 재미있고 즐겁고, 아픈 데가 있어도 카지노만 가면 거짓말처럼 안 아프게 되고, 너무 좋아서 돈만 있으면 계속해서 게임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재미있다는 말에 이어 현실적인 문제 즉 자신의 노후,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식들, 너무 많이 잃은 돈 등을 걱정하고 있었다.

재미있지. 난 재미있고 난 가서 백, 이

백을 따도 즐기는 스타일이라 다 잃고 오고. 그 안에서는 즐겁지. [...] 즐겁게 살았지. 후회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갑자기 노후가 걱정되는 거야. (연구참여자1)

누가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처음부터 이상하게 재미있더라고. 나는 ‘끼’가 있었나 봐요. 재미있어서 그 친구는 안 다니고 나만 막 다니다가 미쳐서 다니다보니까 돈을 많이 잃다보니까. [...] 일단 저기 올라가면 아픈 것도 하나도 안 아프고 몸이 막 찌뿌듯하고 아프다가도 카지노 가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연구참여자4)

기계를 해도 재미있고, 가서 스틸 있어서 맞혀서 들어올 때 그 기분 만끽함, 막 먹었을 때 환상이거든. 이런 즐거운 세상이 없는 거야 돈만 있으면 천국이야, 이런 천국이. 밑에서는 막 몸이 아파서 감기가 들어서 콜록콜록 하죠. 거기만 올라갔다하면 언제 아팠느냐, 안 아파요. 몸 쭈시는 것도 없고 하나도 안 아파요. 카지노만 막 들어가면 정말 안 아파요. 거짓말 같죠. (연구참여자11)

또한 도박은 사랑보다 더 좋고 섹스보다 더 좋다고 말하며, 남자에 미친 듯이 빠지는 것처럼 폭 빠지는 것이라 비유한다.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카지노 도박 역시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헤어 나오지 못하도록 미치게 만드는 것이라고 연구참여자들은 얘기하고 있다. 도박을 그만두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들의 절절한 말처럼 뜻대로 안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있어

이별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듯이 이들에게 도박을 그만두는 것은 그와 같이 고통스럽고 죽기보다 어려운 일인 것이다. 더욱이 연구참여자들은 카지노 도박이 결코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성으로든 경험으로든 잘 알고 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 또는 죽을 것을 알면서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어쩔 수 없이 도박에 빠지는 것임을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랑 좋으면 절대 떨어져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도박이야. 사랑이 이렇게 좋으면 생전 이별하고 못 산다는 거예요. 카지노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 도박이 섹스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틸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도박에 빠지면 헤어 나질 못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6)

솔직히 엄마 죽어도 싫은 걸 모르는 게 바카라예요. 잃어도 아까운 게 십원도 없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폭 빠지는 거야. 바카라 그 플레이, 벙커 거기에. 아이고, 그 뭐라고 그러지, 남자 뒤에 미치듯이 미치는 거야. 폭 빠지는 거야, 거기에. (남자에 미친 듯이요?) 네. 그거보다 더 심해요. 막 빠져, 폭 빠지는 거예요. (연구참여자20)

고스톱은 타임이 있고 따도 끝나고 잃어도 끝나잖아. 거기는 20시간이 돌아가잖아, 20시간을. 그리고 지네는 달러를 20분마다 교대해, 또 3교대 바꿔, 기계화야. 우



리는 잠도 못 잤지, 돈은 잃었지, 열은 받  
지, 자리는 없지, 서서 하지, 돈은 또 떨어  
져 가지, 약조건이야. 근데도 막 불나방처  
럼 새벽까지. (연구참여자8)

### 카지노에 갇힌 삶

카지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  
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공통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카지노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들은 카지노에 갇혀서 자의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는 처지에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박 빚으로 가족과 연  
락을 끊고 갈 곳이 없어진 경우도 있지만 설  
령 돌아갈 데가 있어도 이곳을 떠난 후 다시  
찾아오게 되고 또 찾아오게 된다고 토로한다.  
마치 “물귀신”이 끌어당기듯 다시 카지노로  
끌려 들어온다는 것이다.

저기는 안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하  
면서도 그래도 어떡해. 내가 미련이 있어  
서 내가 거기 아니면 뭐 하러 여기 와서  
살겠어. 그치, 이유가 전혀 없지. 일해서  
먹고 살거면 내 고장, 내 집 있는데서 살  
지, 왜 타지에 와서 해. 근데 여기 저거 때  
문에 머무르고 있다가 생활하고 있는 거  
지. (연구참여자1)

방은 몇 번 얻었어요. 얻었다가 철수했  
다 얻었다가 철수했다. 또 알바도 하고 돈  
떨어지면. 그렇게 처음에는 내 돈 있어갔  
고 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돈이 없으  
니까 일 해갖고 와서, 이게 큰 병이더라고.  
일 해갖고 와서 또 하고 일 해갖고 와서  
한 게 10년도 넘어요. 안해야지, 안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또 3개월 전에 와가  
지고 한 700정도 잃고. (연구참여자9)

그렇기 때문에 연구참여자1은 “아버지를 닮  
아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의 도박행위  
와 그로 인해 형제자매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받아들이며, 이제는 나이가 들어 도박을 그만  
두기에도 카지노를 떠나기에도 때가 너무 늦  
었다고 본다. 연구참여자5 역시 도박을 하며  
이곳에 머무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벌써 죽을 목숨이 카지노에 와서 생명이 연장  
됐다고 여기며 후회는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  
다. 남들이 “정신병자”라고 여기는 것을 당연  
하게 받아들이며, 단지 카지노에서 조심하면  
서 돈이 없으면 안 할 것이라고 체념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나이든 여성들은 그동안 카지  
노를 탈출하고자 무진 애를 썼지만 어쩔 수  
없는 자신과 이같은 처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제 카지노에서 울고 웃는 것  
으로 끝나겠지. 안 해야 하는데 그래 안하  
고 탈출을 해야 하는데 탈출하기에는 너무  
늦었지. [...] 운명이야.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리 안 하면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리 생  
각해. 내가 아파갖고 벌써 죽을 사람이 이  
렇게 거지같이 돈을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생명은 더 있다 오라고 하는가보다. 거지  
됐지만 후회는 없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겠어. (연구참여자5)

아, 이걸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때도 많  
지만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때가 늦  
었어, 이미. 왜냐면 나이가 있잖아. 오늘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가 있으니

까 이제 하는 데까지 하다가 돈이 없으면 안 하겠지, 이런 식이지 뭐. (연구참여자7)

여성들은 카지노 근처에 살고 있는 것이나 도박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또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그야말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구참여자15는 몇 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카지노에 다니고 있지만 자녀들과 친척한테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며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거짓말을 못하던 사람도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격 자체도 변하게 만드는 카지노가 “무섭긴 무서운 데”라고 이들은 말한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프고 세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는 것은 바로 자식한테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경우다. 연구참여자3은 돈 때문에 아들에게 거짓말 한 것을 제일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이 죽었으면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9도 아들한테 거짓말하고 아들 돈을 쓴 것에 대해 미안해하며, 이 때문에라도 자중하고 도박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계속해서 주위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카지노에 다니며 도박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여성들은 모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걸 하다보면은 돈이 떨어지면 거짓말을 하게 돼. 남한테 돈 얘기 하려면 그게 누구냐 하면 자식들한테야. 나는 주변머리가 없어서 이런 사람들한테가 아닌 자식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게 제일 가슴 아파.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제일 가슴 아파. 돈 많이 갖다 없었지만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세월

을 보내지 못했을 거야. (연구참여자3)

나는 원래 거짓말을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도 어떡해, 돈 빼갔고 누구 줬다고 그러고 그러고 못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아들 보는 데도 두번 아들 돈을 해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별면 모르지만은 별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중을 하고. (연구참여자9)

이처럼 모성은 여성들에게 가장 큰 응어리로써 존재하며, 이들도 어머니로서 모성의 굴레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은 이들에게 그토록 끊기 힘든 도박을 그만두게 결단하는 강력한 동기로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준다. 연구참여자11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노름하는 엄마였지만 카지노 영구정지를 하고 조리사 자격증까지 따서 이제는 딸이 자랑할 수 있는 엄마가 된 것을 “행복하다”고 말한다. 도박으로 인해 자식들까지 불행하게 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슴 저미게 알고 있으며, 엄마로서 남들처럼 해주지는 못해도 기본은 되어야 하기에 도박을 끊고자 그야말로 “이를 악물게” 된다. 연구참여자6도 불법도박으로 경찰에 잡혀들어가 전과가 0번이나 될 때까지 그만두지 못했던 사도박을 아들 때문에 딱 끊게 된다. 아들이 대학교수가 되기 전 신원조회에서 엄마의 도박전과가 나올까봐 걱정하는 것을 보고, 그후 강원랜드 카지노에 와서 도박을 할지언정 불법도박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카지노에서 이렇게 있는데 뒷모습이 꼭 우리 아들인 거야, 큰아들. 우리 큰아들이 OO대학교 OO학과 교수 박사예요.

그 아들이 도박을 했는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이 덜컥했나 몰라. 그래갖고 쳐다보니까 앞을 보니까 아니더라고. 나는 할망정 자식들은 절대 안 하길 원하는 거야, 나는 할망정. 나는 비록 도박을 해서 좋아서 하는데 자식이 하는 건 절대 말리고 싶은 거야. [...] 나는 젊어서 도박을 해갖고 경찰서 유치장도 몇 번을 갔다왔나 몰라요. 거기서 잡혀갖고요. 전과가 0번이 되는데. 우리 아들이 그게 뭐지, 신원조회 하는데 “엄마, 도박 그것도 나오려나?” 그게 그렇게 걱정인 거야. 그 뒤로 내가 도박을 딱 끊었어요. 사도박을 딱 끊고 여기 와서 이걸 하다보니까. (연구참여자6)

도박을 끊기가 말처럼 결코 쉽지 않기에 극단적인 경우지만 연구참여자18은 도박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손가락까지 잘랐다. 이처럼 도박을 하는 여성들은 카지노에 가지 않기 위해, 도박을 하지 않기 위해 온힘을 다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끊지 못하고 있기에 카지노에 갇혀있는 자신들의 삶을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여성들조차도 이제는 가능하다면 그만 카지노에서 탈출하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노름 안한다고 내가 손가락을 내가 잘랐어요. 너무 거지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갖고 확 잘라버렸어.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후회가 돼. 왜냐면 겨울 되면 손끝이 시렵고 더울 때는 괜찮은데. 그리고 뭐 잡으려면 힘이 없고 그래요 지금. (연구참여자18)

#### 카지노 주변의 체류 경험

##### 지역주민과의 관계: 상인/고객, 고용주/종업원

도박을 하면서 카지노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역사회 시선은 곱지 않다. 지역주민들은 “카지노 가서 오다가다 남자 몇 번 만나 그냥 살다가 헤어지고 또 딴 남자하고 살고 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니까” 이들로 인해 “동네바닥이 추접스러워졌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보다도 당사자 여성들이 잘 알기에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이곳에 몇 년을 살고 있지만 지금껏 그 어떤 남자 와도 “썸씽” 한번 없었고, 남자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성들은 외모도 몸매도 받쳐주지 않아서 또는 젊지 않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웬만하면 못 남성들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지 않으려고 단도리를 한다. 설령 지역에서의 평판에 개의치 않고 “속된 말로 저 여자 날라리다, 좀 문란한 여자다. 그러든지 말든지 간여 안하”면서 남성들과 어울려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심지어 남자의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이들도 남자에게 구속받거나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며 더군다나 남자친구나 애인이라는 이름하에 남자와 얽혀서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나는 식당 해도 술도 팔거든, 이것도 하고 서울에서 온 싱글이고 얼마든지 바람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욕 안 얻어먹으면서 할 수 있어. 안돼 그게 난 성격상. 그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조그만 바닥에서 사람들과 어디 가면 둘이 애인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 난 8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 썸씽이. 아무도 없었어. (연

구참여자1)

편하게 있어요. 나는 그냥 누구한테 구속 안 받고 얽매는 것 싫으니까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아요, 혼자. 그렇잖아요, 노름해서 그거라고 갖고 있어야지. 미쳤다고 남자들, 애인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어갖고 전화 받고 전화 오는 거, 아휴 꼴보기 싫어. 우리는 그런 것 못해요, 성격이 천볼나갔고. (연구참여자20)

카지노 이용 여성들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을 옹기 안 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수궁은 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여기 와서 밥도 사먹고 방세도 내주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데 “양아치”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실제로 도박하는 여성들은 개인적으로 “주민들과 별로 큰 교류가 없다”고 얘기하거나 심지어 대화를 해본 적도 없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여성들은 이같은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이곳의 방세나 물가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더욱이 식당, 가게들이 고객인 자신들한테 너무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불만이 크다. 자신들 역시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도박하는 사람의 돈은 돈이 아닌 것처럼 집주인이나 상인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바가지를 씌우고 돈만 벌려고 하는 점에 대해 이들도 옹기 보지 않는다.

주민들이 “저그들 저 미친년들이 와서 뛰여.” 우리들이 와서 방세 내주고 생활해주는 걸로 저그들이 먹고 사니까 좀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데 “카지노에 가있으니까 우리 동네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

들도 있어. (연구참여자5)

방만 더럽게 비싸갖고 진짜 방은요 부르는 게 값이잖아. 지금 이게 이런 집 같은 경우도 없는 사람한테 방세는 지질나게. 그리고 보증까지 걸어갖고 냉장고 뭐 기스 하나만 가도 뭐 10만원씩 받고 이런 여자예요, 여기 이 집 주인 여자가. (연구참여자18)

이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은 카지노에서도박을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노동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지만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고 선불을 당겨쓴 처지이기에 힘든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CCTV가 있어 종업원이 속이는지 아닌지를 주인이 직접 감시하는 곳도 있지만, 나이트 여성들은 아무리 식당일이 힘들고 노예처럼 일한다 하더라도 그나마 자신을 써주고 일을 맡겨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여긴다.

전부다 선불을 천만원, 천오백씩 땡겨갖고 그 빚 때문에 어디를 가지도 못해. 식당이 무슨 유흥업소도 아니고 식당이 그래, 식당이. 그러니 해야 돼, 그러니까 노예나 거의 비슷한 거잖아. 그래도 나는 빚이 없어가지고 딱 그만 두었어요. (연구참여자9)

그런 데는 CCTV 있잖아요. 그걸 다 부착해놓고 자기 카메라로 집에서 자기가 다

보는 거예요 집에서. 그럼, 사람들 카지노 와갔고 다 거기 돼갔고 식모살이로 다 들 어간 거야. 지금 있는 사람들도 가정 다 버리고. 그래 방 얻어놓고 죽도록 일하고 카지노 가고 이래요, 그 아줌마들도. 그러 니까 자기 휴대폰에 CC카메라 해놓고 카 메라 다 보는 거야. 이 여자가 농땡이 치 고 있구나, 이모 뭐해 손님 왔는데 물주지, 막 이럴 정도. 여긴 그래요. (연구참여자18)

낮에 일하는 애는 자꾸 눈을 속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CCTV가 있어 다 알잖아. CCTV 다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 자체 도 안 속이려고 맘먹고 있지만 또 우리 같 은 마음이 없더라고. [...] 난 교회 저기거 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런 집에 이렇게 나를 맡겨봐도 진짜 10원짜리 한장 안 속이고 해준다는 것을 믿고 있지. 근데 나를 믿어주는 게 고마운 거지. (연구참여 자7)

더욱이 읍사무소에서 희망근로로 야생화 묘 목을 심고 가꾸는 일을 하는 연구참여자16은 영구정지를 내리고 현재 주민등록 주소까지 이곳에 옮겨놓은, 스스로가 강조하듯이 “여기 동네 지역주민”이다. 그럼에도 읍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주민들의 텃새를 직접 경험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주민들과 사귀기 위해 애쓰면서 자신이 먼저 다가가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텃새 있더라고요. 텃새 있어요. 그것도 별 것도 아닌데 다들 그래요. 별 것도 아 닌 데도 그까짓 일하는데, 희망근로거든요. 희망근로 저나 나나 똑같은 입장이야 그

죠. 그리고 맑은 일이나 열심히 하고 그러 면 될 뿐인데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내 가 처음 갔을 때는 자기네들 장갑이 흠도 안 들어가고 좋다고 해서 “언니, 그럼 나 도 좀 사줘. 어디서 사야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내 건 안사고 지네들끼리 싹 사 갖고 오더라고요. [...] 근데 내가 인제 반 찬도, 난 큰 데다 푸짐하게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지들도 내 반찬 다 먹어보잖 아요. “음식 잘해요, 잘해요” 하면, “식당 했잖아요. 많이 드세요. 내가 모자라면 또 해올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귀고 그래 요. (연구참여자16)

도박을 하며 지역사회에 머무는 중노년 여 성들은 주로 식당일을 하기에 이곳에 있는 도 박하는 남성들과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남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일은 공사현장의 일용노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디까지나 고객으로서 존 재하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고용관계에 있 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여성들은 식당이나 마트에서 일을 하기에 이들의 일터는 바로 지 역사회 내에 있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람도 식 당이나 마트를 운영하는 주민들인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여성들은 장사를 하는 지역주민들 에게 고객인 동시에 종업원의 관계도 맺고 있 는 것이다.

### 주 6.5일, 하루 12시간의 노동

카지노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주방이나 서빙 일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도박으로 인해 이곳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이다. 이들은 이곳 에 오기 전부터 식당을 직접 운영했거나(연구 참여자6, 9, 12, 16), 카지노를 이용하던 초창

기에 이곳에 와서 야심차게 식당을 차려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연구참여자1, 4, 11). 식당일이 처음이라 하더라도 여성들은 몇 십 년동안 줄곧 음식 만드는 일을 해왔기에 무슨 큰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냥 설거지하고 그냥 반찬이나 만들고” 하면 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곳의 식당은 특히 다른 곳보다 노동강도가 세고 노동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다. 최저임금은 당연 보장이 안될 뿐만 아니라 법정 노동시간이나 최소한의 휴일도 별의미가 없고 그것을 따지는 사람도 없다. 연구참여자14는 식당일이 너무 힘들어 편한 일을 찾으려고 편의점에 갔지만 거긴 일하는 시간이 짧은 만큼 급여가 적어 돈 때문에 힘들어도 다시 식당일을 하게 됐다. 하루 8시간 일하는 편의점의 월급으로는 빚 갚고 방세 내고 생활하고 또 가끔씩이나마 카지노 가기에 부족한 연구참여자1도 편의점에서 일은 해도 동업으로 저녁시간 때에 작은 식당을 꾸려가고 있다.

내 조그만 가게를 하니까 [저녁] 5시 나 갔다 10시나 11시에 끝나고, 그리고 한두 시간 쉬다가 여기[편의점] [새벽] 1시에 출근해서 그 이튿날 9시에 퇴근을 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잡을 하는 거야. 내 장사든 아니든. 그러니까 두 군대를 뛰면서서도 그것을 벌어서 사람들은 떼돈을 벌려고 그러느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 다니면서 빚진 돈도 있고 갚으면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두 군대를 뛰는 거지. (연구참여자1)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 지역주민 주인 빼고는 다 거의가 카지노에 돈 잃고

일한다고 보면 돼요. [...]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는 쉬어야 하는데 여긴 다 두 번 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 쉬는 것도 쉬고 싶어도 대체할 사람이 없으면 또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편의점에 갔다가 여기 와갖고 4월달에 왔는데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하루도 못 쉬었어요. 쉬고 싶어도 쉬겠다고 해도 누가 일할 사람이 없어갖고 못 쉬었어요. (연구참여자14)

대부분의 식당은 주방일을 하는 사람과 서빙을 보는 사람을 각각 한명씩 고용하며 이들은 하루 12시간 일을 한다. 카지노가 오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운영하기에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나오는 손님들을 받기 위해 이곳 식당은 대개 24시간 문을 여는 데가 많다. 따라서 야간에 식당일을 하는 경우는 더 힘들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야간수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한달에 두번을 쉴 수 있지만 이것도 대체인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을 경우는 그야말로 몇 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쉬는 날 일을 했을 때 따로 일당으로 쳐주기 때문에 빚도 있고 한푼이 아쉬운 여성들은 휴일 없이 일을 하기도 한다. 더욱이 관광객이나 스키어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 여름 휴가철이나 겨울 스키철에는 식당에 손님들이 몰려오기에 화장실 갈 틈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다.

둘이 한다니까. 근데 서빙하는 게, 주방은 주방만 하면 되지만 근데 내 같은 경우에는 서빙도 다 해야 되거든 갖다 주고, 또 나가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계란도 후

라이는 내가 꾸어주고. 개는 생선 굽고 된장찌개하면 된장찌개 해주고, 또 반찬도 다 내가 담아갖고 들어가 갖다 주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 더 힘들어 서빙이 두 가지를 왔다갔다 하니까. (연구참여자10)

12시간 하는데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야. 거기 들어가면 어느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낮에. 그 정도로 일을 하니까 나이를 먹다보니까 힘에 겨워서 힘들어. 내가 요즘은 조금은 덜 바쁘게 여름 휴가철, 겨울 스키철 이런 때는 너무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막 힘이 들어서 진짜 집에 오면 죽어 죽어. (연구참여자3)

이에 비해 이곳에서 도박을 하고 일을 하며 거주하는 남성들은 대부분 일용노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 거주자인 경우 택시기사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곳 택시 대부분이 여기 와서 도박으로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이곳에 눌러앉은 남성들이 몰고 있다는 것이다. 중노년 여성들은 남성들의 노가다 일은 나이 들어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나이 들어도 식당일을 할 수 있기에 남자들보다 오히려 형편이 낫다고 본다. 또한 젊은 사람들은 다방이나 노래방 등에서도 일할 수 있지만 나이든 자신들이 그나마 일할 수 있는 데는 식당뿐이라 여기고 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50대 중년여성들은 노년 여성들이 종사하는 힘든 식당일보다는 다방이나 노래방, 대리운전 및 잔심부름 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

남자보다 낫지. 남자들은 뭐해요, 노가다 아니면 일할 데도 없고 노가다가 많은

데 그것은 나이 먹어서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칠십 넘은 사람이 노가다 하겠어요, 못 하지. 근데 우리는 칠십 넘어도 식당일은 하잖아. 젊은 사람들이야 다방 이런 데로 가겠지만 난 그쪽 분야가 아니니까 모르지. 난 나이가 많으니까 식당 주방이나, 서빙도 못 보고 주방이나 설거지나 하고. (연구참여자4)

저는 어떤 철칙을 가졌나하면 돈도 가진 건 없지만 생돈을 갖다 하지는 않아요. 벌어서 써요. 전 머리 천연염색도 하거든요, 벌어서. 그리고 오늘 식당에 언니가 바쁘다 그러면 일해요. 대리운전도 해요. 또 오늘 단체손님이 와서 노래방에서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날 난 거기도 가요. 다 벌어요, 일단은 벌어요. 벌어서 써요. [...] 카지노는 다니면서 카지노도 거기서 뭐 조금씩 버는 게 있어요. 가면 심부름 해주고 그냥 오락기에서 하면 환전도 해주어야 되고 음료수도 챙겨주어야 하고 잠깐 화장실 가면 그 자리도 봐주어야 돼. 그런 역할을 하면 또 수고비 좀 줘요. (연구참여자8)

개인도우미, 개인프리스, 노래방. 노래방 1시간에 3만원인데 그게 괜찮거든. 밀천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는 거거든. 거 또한 몇 달 했었거든, 친구 때문에. 그애 차로 같이, 일행 손님이 많으면 둘이 부르면 같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노래방, 술집 같은 데 흔들고 놀고. 내가 다방을 하고 또 개인도우미 뛰고 하니까 살지. [...] 또 돈 만 들어 그렇게 하고 게임하고 그러는 거지. 식당일은 난 못해, 때려죽여도. 중노동이잖

아, 못해요. 구정물에 손 담그는 것 못해.  
(연구참여자20)

## 제2의 정착지 모색

카지노 초창기 때부터 다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때가 사람도 분위기도 지금보다 좋았다고 기억한다. 그때는 카지노 이용자들이 중상류층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었으며 당시만 해도 초기여서 전재산을 잃은 이용자도 많지 않던 시절이라 사람들이 매너 좋고 게임을 즐길 줄 알았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지금은 도박으로 인해 가진 돈 다 잃고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돈문제로 가족한테까지 거부당한 채 갈 데조차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카지노에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간미가 없고 정이 없다”거나 “사기꾼이 많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더욱이 카지노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는 돈이 개입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돈거래가 없을 때는 일터에서도 동네에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

오래 다녀서 다 알아. 지금 거기 과장들 개네들 다 옛날 스물에서 딜러 애들였는데. 우리 2002년도 월드컵 할 때는 문 다 닫고 나가서 축구 다 보고, 지금은 그런 것 없어. 옛날에는 아예 카지노 문을 닫았어. 월드컵 때 굉장했어. 그때는 가족적이었어. 서로 부장들이나 딜러들이나 고객들이나 그때는 다 있는 사람들이었잖아. 헐 뜯고 뜯어먹으려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 정말. 지금처럼 “씨발” 이러면서 기계를 쫓 때린단다가 하는 일이 없었어. 그때만 해도 여유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악만 남고. (연구참여자2)

그게 걸으려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다 친한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다 자기 계산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돈 좀 또 게임할 거 빌려주고 그런 사람들은 살살거리고 일도 서로 도와주는데 돈거래를 안 하니깐, 또 나도 없는데 돈거래를 안 하니깐. 여기는 돈 안 빌려주면은 별로 상대를 안해. (연구참여자9)

도박으로 인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다보니 주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외톨이가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돈이 없다보니 친구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여성들은 이미 돌아갈 집도 자신들을 반겨줄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이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설령 물리적으로 돌아갈 집이 있다하더라도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없는, 그 이전에 해왔던 생활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카지노 때문에 여성들은 가족도 인간관계도 더 나아가 삶 자체도 과거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살던 데에서는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멀어지고 또 내 자신이 과거에 알았던 사람이기에 지금은, 뭐 뱀새가 황새 따라간다면 가랭이 찢어진다고 그러죠. 지금은 개네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수준이 못 되잖아, 내가. (연구참여자12)

집에 간들 이제 취미가 없어졌어요. 여기 이거 카지노 다니면서 헤버릇 해갖고 아무 것도. 우리는 뜨개질도 잘하고 꽃도



좋아하고 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졌어, 잃었어요. 그래갖고 못해. 완전 내 자신이 병이 들은 것 같아. (연구참여자4)

반면 이곳은 카지노라는 공동의 장소가 있고 도박이라는 공동의 관심사가 있기에 여성들은 카지노에서 만나 금방 친해지기도 한다. 카지노에서 맨날 얼굴 보는 사이가 되기에 나이를 더 먹고 덜 먹고에 상관없이 마음이 맞으면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카지노를 다니는 여성들은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잘 알기에 필요할 때 단돈 얼마라도 빌려주고 나눠쓰면서 지내기도 한다.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고 카지노 도박이나 돈 잃어 속상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같은 처지에 있다보니 서로 공감도 하고 위로도 해주면서 자신들의 속사정을 맘대로 얘기할 수도 있다.

거기 들어가면 그 안에 4천명이 항상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보던 사람, 다 열흘이고 오는 사람이니 절반은, 뜨내기나 한 10프로 걸리고 나머지는 다 오던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본 얼굴이 본 얼굴이고 약속 없어도 몇 바퀴만 돌면 다 만나요 그 안에서. 서로 뭐 하나 이래갖고 뭐 또 하루 부자, 하루 거지라고 끝나면 같이 밥 먹자 해서 같이 먹고 밥 먹는 거 같은 것은 술해요. (연구참여자8)

근데 거기에 젖어있기 때문에 말이 세상 사람하고는 공유가 안 되는 거야. 가서 내가 오늘 이백 월급 타갖고 한 달 내고 생해서 갖다 잃었으면 “미친 년 지랄해”

이러지, “아휴 안됐어” 이러겠어. 여기서는 “아휴, 좀 조심하지.” 그러면서 사람이 서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데 서울에 가서 내가 돈 잃고 왔다고 그래봐, “아휴 미친년 아 지금 네 나이가 몇 인데 그래” 그러지. 그 말 들으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해. 공유가 안 되니까 여기로 와 지는 거야. (연구참여자5)

아이들이 뭘 생각을 하나하면 “왜 거기서 도박을 끊었는데 왜 못 돌아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이 나이 먹어서 서울 같은 데 가면 일할 자리도 없고 보기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너무 그렇잖아. 아이들한테 얹혀사는 것 자체도 마음부터 답답해요. 여기가 일단 공기가 좋잖아요. 공기 좋고 아직 좀 나이 먹은 사람도 뭔가가 일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고 싶지는 않아요. (연구참여자11)

도박을 끊고 평생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지 않기로 영구정지까지 한 여성들도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기반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살고자 한다. 어차피 돌아가봐야 자식들도 반겨주지 않을 것이고 집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상황에서 도박을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다. 연구참여자11이나 16은 영구정지한 후 조리사나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연구참여자18은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는 등 이곳에서 노후를 보낼 계획이다. 이처럼 도박을 끊었어도 일부 여성들은 공기도 좋고 정도 들고 통하는 사람도 있는 이곳을 자신들의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제2의 정착지로 여기

면서 정착을 준비하고 있다.

## 논 의

한국에서 도박하는 여성에 대한 뉴스는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이들 뉴스는 일관되게 도박하는 여성을 ‘여성’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할과 위치에 있는 ‘주부’로 자리매김한다(연합뉴스, 1990, 2017). 주부라는 명명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보도기사는 도박하는 여성을 우리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대상화하고 문제시 하는지를 말해준다. 도박이라는 행위는 돈과 사행성을 추구하는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으며, 예로부터 투전꾼이나 도박꾼이라는 용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남성이라는 전제가 은연중 내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도박단에 관한 기사가 매스컴에 보도되었을 때 사회적 파장이 컸고 지금까지도 불법이든 합법이든 여성의 도박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적 사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도박이 범죄시되고 문제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도박에 빠지면 가족이나 주위의 도움은커녕 사회적으로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카지노로 인해 그 인근에 체류하고 있는 여성들의 도박 경험과 일상의 삶을 드러내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카지노는 어디서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도박과는 달리 특정한 물리적 장소에서만 게임을 할 수 있다. 물론 경마, 경정, 경륜도 특정 장소에서 행해지지만 이같은 도박은 주말이나 특정 요일 등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굳이 사람들이 그 장소

에 거주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에 비해 카지노는 1년 365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소의 한정성과 시간의 무한정성이라는 카지노 도박의 시공간적 특성이 도박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이곳에 거주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착 카지노에 다니면서 이곳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사행업체나 정신의 학자, 상담자 등 소위 전문가들만이 말하는 카지노 현장에서 도박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여성들이 도박을 하게 된 계기는 대개 남편의 폭력이나 외도로 이혼 또는 사별을 겪으면서 도박을 알게 되고, 도박행위에서 재미와 스릴, 쾌락을 경험하며 도박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카지노 주변에 머물면서 돈을 벌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도박의 중독성 때문에 또는 도박을 했다는 낙인으로 인해 카지노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지노를 이용하는 중노년 여성들의 경험과 삶에 관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인근에 체류하고 있는 여성들은 가족의 해체나 고통스런 삶의 한 지점에서 우연찮게 도박을 접하게 되고, 도박에 빠져 이곳까지 오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안에 머물러있던 중년여성들의 생애주기에서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은 도박을 더욱 강렬하게 경험하게 한다. 이처럼 삶의 위기상황에서 도박은 위기를 모면하고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로 인해 여성들은 또 다른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된다. 이는 여성이 생애과정에서 겪는 삶의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빈약하다는 것을 방증하며, 따라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개입이 요구된다.

둘째, 여성의 욕망과 쾌락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성주의 내에서도 크게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다. 다만 남성 쾌락의 객체로서 여성이 어떻게 대상화되어 왔는지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두었다. 여성도박자에 대해서도 정서적 문제나 고통스런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도박을 한다고 여겨졌지만,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도박행위가 주는 재미, 스릴, 쾌감의 경험을 말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가져야 하는 욕망은 가정과 가족에 한정되거나 아니면 여성은 욕망이 없는 존재로 몰락되기에 도박하는 여성은 우리사회가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여성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담론화하고 재현하는지를 드러내준다. 도박은 하나의 균열로서 욕망이 표출되는 틈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도박으로 인해 여성들은 카지노에 갇히고 중독의 늪에 빠져 버려지고 고통받는 삶을 지속시키고 있다.

셋째, 경제적 자원의 상대적 빈곤으로 여성들은 계속되는 도박행위에서 남성보다 빨리 지불불능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여성들로 하여금 돈을 벌기 위해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진입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카지노 인근에서 대부분 도박하는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수행하던 가사노동의 연장인 식당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별화된 노동환경은 여성노동의 착취적 구조를 재생산하고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장시간의 중노동은 여성도박자들이 공적 지원이나 상담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한다. 상담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더라

도 또는 상담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상담받을 시간과 여유가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도박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층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로의 복귀서비스가 지원되기보다는 도박문제에 대해 단일하고 획일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박중독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에서도 도박행위 자체가 낙인으로 작용해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원래 거주하던 지역으로 복귀하기보다는 도박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카지노 인근지역을 자신들의 또 다른 정착지로 여기며 앞으로의 삶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지역공동체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치유담론과 실질적이고 다층적인 지원방안을 우리사회가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성군 (2010). 도박행동과 문제의 성차: 내국인 카지노 출입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교현 (2009). 한국 도박중독 문제의 책임과 대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27-39.

김세건 (2008). 베티하는 한국사회. 과주: 지식산업사.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박창우, 김세원, 김남선 (2016). 카지노 주변 도박관련 체류자 실태조사. 서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박창우, 최정현 (2013). 카지노 인근지역 장기

- 체류자들의 도박경험 및 삶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4, 33-65.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2014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6). 2016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7). 2016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송주연, 연구월, 이태경 (2005). 여성 도박자의 임상적 특성. *神經精神醫學*, 44(6), 676-681.
- 송진아, 김용근 (2014). 카지노 인근에 머무는 도박중독자의 체험연구 - 체험한 관계성, 신체성, 시간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8(1), 125-151.
- 윤택림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윤택림, 함한희 (2006).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근무, 강준혁, 이혁구 (2015). 카지노 도박중독 과정과 내용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 *사회복지연구*, 46(1), 31-57.
- 이인혜 (2004). 카지노게임 선호유형, 성별, 도박심각성과 심리적 특성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351-378.
- 이태원 (2004). 카지노 출입자의 사회인구적 특성, 도박중독, 그리고 도박동기와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5(2), 178-219.
- 이혁구, 이근무, 김용근 (2014). 카지노 주변 장기체류자들의 일상세계 - 총체적 문화기술지 접근. *사회복지연구*, 45(1), 287-316.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6). 2015 도박문제관리백서. 서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한영옥, 김현정, 이연숙, 김한우, 김태우, 이재갑 (2012). 도박중독치료기관을 방문한 도박자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2), 353-369.
- 홍혜미, 김용근 (2014). 여성 노인 도박자 생애사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2), 63-90.
- 황현탁 (2012). 사행산업론: 도박과 사회. 파주: 나남.
- Afifi, T. O., Cox, B. J., Martens, P. J., Sareen, J., & Enns, M. W. (2010). Demographic and social variables associated with problem gambling among men and women in Canada. *Psychiatry Research*, 178(2), 395-400.
- Avery, L., & Davis, D. R. (2008). Women's recovery from compulsive gambling: Formal and informal supports.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in the Addictions*, 8(2), 171-191.
- Baxter, A., Salmon, C., Dufresne, K., Carasco-Lee, A., & Matheson, F. I. (2016). Gender differences in felt stigma and barriers to help-seeking for problem gambling. *Addictive Behaviors Reports*, 3, 1-8.
- Ciarrocchi, J. W. (2007). 도박중독 심리치료. 김경훈, 김태우, 김한우, 안상일, 이영찬, 최성일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서출판 2002)
- Delfabbro, P. (2000). Gender differences in Australian gambling: A critical summary of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research.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35(2), 145-158.
- Dowling, N., Smith, D., & Thomas, T. (2009). Family Functioning of Female Pathological

- Gamb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7(1), 29-44.
- Gavriel-Fried, B. & Aizenstadt, M. (2012). Pathological Women Gamblers: Gender-Related Aspects of Control. *Sex Roles*, 66, 128-142.
- Getty, H. A., Watson, J., & Frisch, G. R. (2000). A comparison of depression and styles of coping in male and female GA members and control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6(4), 377-391.
- Grant, J. E., Chamberlain, S. R., Schreiber, L. R. N., & Odlaug, B. L. (2012). Gender-related clinical and neurocognitive differences in individuals seeking treatment for pathological gambling.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6(9), 1206-1211.
- Grant, J. E., & Kim, S. W. (2002). Gender differences in pathological gamblers seeking medication treatment. *Comprehensive Psychiatry*, 43(1), 56-62.
- Grant, J. E., Kim, S. W., Odlaug, B. L., Buchanan, S. N., & Potenza, M. N. (2009). Late-onset pathological gambling: Clinical correlates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3(4), 380-387.
- Grant, J. E., & Potenza, M. N. (2012). 병적 도박의 치료와 임상지침. 이재갑, 이경희, 김중남, 박상규, 김교현 옮김.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04)
- Holdsworth, L., Nuske, E., & Breen, H. (2013). All Mixed up together: Women's Experiences of Problem Gambling, Comorbidity and Co-occurring Complex Need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 Addiction*, 11, 315-328.
- Jaggar, A. M. (1992). 여성해방론과 인간본성. 공미혜, 이한옥 옮김. 서울: 이론과 실천. (원서출판 1983)
- Kim, Sungjae, Kim, Wooksoo, & Dickerson, S. S. (2016). Recognizing the Two Faces of Gambl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6(5), 753-765.
- Ladd, G. T., & Petry, N. M. (2002). Gender differences among pathological gamblers seeking treatment. *Experimental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10(3), 302-309.
- Ledgerwood, D. M., Wiedemann, A. A., Moore, J., & Arfken, C. L. (2012).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readiness of male and female problem gamblers calling a state gambling helpline.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20(2), 162-171.
- Li, J. (2007). Women's ways of gambling and gender-specific research. *Sociology Inquiry*, 77(4), 626-636.
- Padgett, D. K.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유태균 옮김. 과주: 나남출판. (원서출판 1998)
- Reith, G. (2006). 도박. 김영선 옮김. 서울: 꿈엔들. (원서출판 2002)
- Slutske, W. S., Piasecki, T. M., Deutsch, A. R., Statham, D. J., & Martin, N. G. (2015). Telescoping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time course of disordered gambling: evidence from a general population sample. *Addiction*, 110(1), 144-151.
- Spradley, J. P. (2003). 문화기술적 면접법. 박종흡 옮김. 서울: 시스마프레스. (원서출판 1979)

- Spradley, J. P. (2006), *참여관찰법*. 신재영 옮김. 서울: 시스마프레스. (원서출판 1980)
- Suetens, S. & Tyran, J. R. (2012). The gambler's fallacy and gender.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83, 118-124.
- 민주신문 (2006. 12. 20). 강원랜드 카지노 '쪽박걸': 몸 줄 테니 재워주세요.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0>
- 연합뉴스 (1990. 5. 6). 10억대 판돈 주부도박단 15명 검거. <http://v.media.daum.net/v/19900506160800118?f=o>
- 연합뉴스 (2017. 11. 30). 바닷가 펜션에서 노름한 주부도박단 무더기 검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30/0200000000AKR20171130053800055.HTML?input=1179m>
- 오마이뉴스 (2016. 6. 16). 돈 탕진해야 카지노 발길 멈춰요: [인터뷰]전직 강원랜드 카지노 딜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8736](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8736)
- 일요시사 (2012. 3. 28). '인간도살장' 강원랜드 충격 실태: '희망' 품고 왔다 '절망'에 발목 잡혀 '폐인'되다.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36>
- Break News (2007. 3. 23). 강원랜드 여자앵벌이 '쪽박걸' 실체공개.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62991](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62991)
- 1차원고접수 : 2019. 07. 03.  
심사통과접수 : 2019. 09. 20.  
최종원고접수 : 2019. 09. 28.

## A Study on Middle-aged Women's Experience of Gambling and Staying near the Casino

Seon Hee Hong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Women gamblers are marginalized and excluded from the society while being blamed and stigmatized. However, in the situation where the rate of women gamblers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and understand gambling experiences and everyday lives of women who stay near the casino through their own voices. The researcher stayed in the field for a while and conducted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based on field surveys. Twenty middle-aged women gamblers of staying near the casino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s. They have usually lived a (non)conforming life in the family, and were exposed to gambling in a life-threatening crisis of divorce or bereavement with husband, then became addicted to gambling by experiencing fun and pleasure. Despite the hard work near the casino to make money, they have wanted to settle there as members of the commun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social intervention to cope with the life crisis of women in their life cycle, and for support that women gamblers can return to and settle in the community.

*Key words* : *Gambling, Women Gambler, Casino, Field Research*